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7월 28일 (제101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럼

전도몽상(顛倒夢想)

사람이 필요해서 돈을 만들었는데 돈이 주인이 되고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 사람을 위해 옷을 만들었는데 명품 옷을 입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비싼 옷 입고 신경 쓰느라 아무것도 못 하는 사람들, 집이란 것이 사람이 쉬는 공간이건만 큰 집을 사기 위해 밤잠 안 자고, 안 먹고 사는 사람들, 편하자고 타는 자동차인데 비싼 자동차를 사고는 행여 흠집 날까 전전긍긍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전도몽상이다.

전도몽상(顛倒夢想), 이는 뭔가 뒤바뀐 상태를 일컫는 말로, 주객전도의 개념과 일치한다.

어디 그뿐이라! 사람이 만든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신으로 여겨 섬기는 것, 하나님이 재물과 명예를 주셨건만,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매달려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역시 전도몽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눅16:13)고 하셨으리라.

전도몽상을 막는 길은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면 된다. 무엇이 주(主)인지 무엇이 부(副)인지를 알면 된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주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절차나 형식이 주가 되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목에 김스한 듯 자신들만이 의롭다며 외식을 일삼았다.

우리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고, 전도몽상이나 주객전도 같은 어리석은 일에 매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자면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얽매어 살지 말자.

기도하는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목사님은 2000년 이후 수많은 해외집회를 진행하시면서 목회자 및 실업인 세미나를 병행하시곤 했다. 그 지역사회의 영적인 리더들뿐 아니라 정계, 재계의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에서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비결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이란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잿더미가 되었던 나라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최빈국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세기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가? 이는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이 국가적 빈곤상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모아 국민적 총화를 이루어낸 결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교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면 자본주의든 뭐든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야한다’는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도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모델로 삼은 그들의 오랜 연구와 분석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잘 살아보라고 부지런히 배우며 열심히 일하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위기에 직면해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반도체제조업의 위기이고 이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주력산업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항상 국가적 위기를 기회로 삼아 국난극복의 지혜로 오늘에 이르렀다. 폐일

개하면 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실 것이다. 우리나라가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실 것이다. 반드시 전화위복의 역사로 응답하실 것이다.

이제 올해도 어김없이 청소년 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가 3주 연속으로 진행된다. 오는 10월 1일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가 개최된다. 때가 맞아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뜻을 정하신 것이다. 모두가 시간을 내야한다. 기도원으로 달려가 이 위기를 해결해달라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은 논쟁할 때가 아니다. 이념과 진영을 가르고 누구 탓



지금쯤 마음과 뜻을 모아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이다

회 지도자들이 새벽기도운동을 펼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모든 기독교인들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가(國歌)의 가사에는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애국가를 부르며 기도로 새벽을 깨우고 밤이 맞도록 부지런히 공부하며 일했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우리 부모들은 먹을 것 못 먹어가며 2세들의 교육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국가지도자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선진국의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이고 해외인재들을 적극 유치하여 국가경제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았습니다. ‘검은 교양이든 흰 교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곧 나라

언하고 지금은 힘과 뜻을 모아 기도할 때이다. 우리는 위기 앞에 늘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북한의 핵 위기에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 작금의 한반도에 불고 있는 평화무드도 바로 우리가 기도한 결과 아니던가! 핵문제로 미국과 북한이 서로 충돌할 때 어찌 오늘 의 상황을 생각이나 했던가? 그러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는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지금 한반도는 평화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미 답을 갖고 있다. 위기 앞에 전전긍긍할 이유 없다. 의연한 자세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여 이 난국을 타

을 하며 싸울 때가 아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지혜를 모을 때이다. 앗수르왕 산헤립의 침공에 애통하며 기도하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기억하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 앞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와는 홀로 하나님이 신줄 알리이다 하니라”(왕하19:14~19). 기도하는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모두가 기도원에 모여 합심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 번 우리가 이루어보자.

한은택 목사

제23회 청소년연합수련회

중고등부 7월 29(월)~31일(수), 청년대학부 8월 1일(목)~3일(토)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전5:1~7)



못 지킬 서원은 하지 말라

서원(誓願)이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든지 혹은 하지 않겠다든지 하는 하나님과의 엄숙한 구두 언약입니다. 이 서원은 자발적인 약속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하는 자원적인 약속입니다. 서원과 맹세는 거의 흡사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맹세가 일방적이라면, 서원은 조건부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맹세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혹은 ‘난 절대로 그런 일 한 적이 없다. 진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거라면, 서원은 ‘무엇을 해주시면 하겠다’는 조건부의 맹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서원의 첫 사례는 야곱의 서원입니다. 야곱이 에서의 복을 가로챈 후에 도망하여 벧엘에서 유숙하며 잠을 자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뵈는 꿈을 꾸고는 일어나 베고 잤던 돌을 가져다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창28:20~22).

그러나 그는 이 서원한 것을 20년이나 까마득히 잊고 살았습니다. 부자가 되어 귀향한 야곱은 벧엘로 가야 하는데, 그곳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다 딸 디나가 겁탈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창35:1). 야곱은 그제야 도망자 시절에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가족을 데리고 서원의 회복을 위해 벧엘로 올라가 다시 단을 쌓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창35:11~12).

약속은 곧 생명이다 지킬 수 없으면 말도 말라

서원은 하나님과 상호적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A를 해주시면 제가 B를 하겠습니다’라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원을 하면 A를 반드시 해주십니다. 문제는 B를 지켜야 하는 사람입니

다. 그런데 사람이란 자고로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자들인 지라 하나님이 주신 A를 받고 나면 확 돌변합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야곱도 그랬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 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네게 죄라 네가 서원치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니라”(신23:21~22)고 경고하셨고,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 하는 것이 나으니”(전5:4~5)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받을 자가 있으니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출신성분이 그리 떼뜻하지 않은 기생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정실의 자식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고, 기업을 잊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하는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의 고향 길르앗을 떠나 돌에 거하며 잡배들을 모아 군대를 결성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오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만일 입다가 도와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게 해준다는 것이 그들의 조건이었습니다. 입다는 꼭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꼭 암몬을 이겨 자신을 멸시하던 자들의 머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은 서원을

들으시고 잡류로 뭉친 입다의 군대가 정규군인 암몬의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암몬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입다를 제일 먼저 맞이하며 뛰어나오는 자가 다름 아닌 입다의 무남독녀가 아닙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입다는 두 달 만에 지키기 어려운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 서원한 것을 지킨 입다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경솔한 서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뿌린 씨도 썩을 내지만 실수로 떨어진 씨도 썩을 나뭇 모든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때 문 입 다. 가끔 제가 상담을 온 성도 중에 ‘이게 되지만 하면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불리 하나님 앞에 약속하지 말라고 해도 ‘꼭 하겠다’고 해놓고 입을 썩 찢는 경우를 봅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렸든, 일부러 지키지 않는다 죄입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안 지키면 입건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네 입으로 네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 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라”(전5:6).

서원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지키지 않을 시에는 울무가 되니 급하다고 아무 서원이나 하지 마십시오. 늘 입다의 고백을 가슴에 두길 바랍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참담케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이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삿11:35).

맹세도 동일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디에 가시든 따르겠노라 맹세해 놓고는 예수님이 잡히자 돌변했습니다. 절대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가 닭 우는 소리에 깨닫고 수제자가 되었으니 다행이지 만일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면 성경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찌니”(마5:33~34)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도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서원했을 경우 아버지가 듣고 ‘안 돼’ 하면 그 서원은 사해됩니다(민30:5). 또 아내가 서원했을 경우 남편이 제어하면 그 서원 역시 사해됩니다(민30:8).

서원의 기도는 기적의 열쇠다

서원이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의 표시이기에, 내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시인하며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의 표시이기에 상달함이 큼니다. 그래서 한나가 서원하여 사무엘을 얻었고(삼상1:11), 바울이 수리아로 떠나기에 앞서 머리를 깎으며 서원을 하자(행18:18)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사 가는 곳마다 강론할 때 모든 사람이 듣고 은혜를 받았고,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사지가 마비되었을 때 ‘살려주시면 이 한 목숨 드러 주를 위해 살겠다’고 서원하여 나음을 입었습니다. 또 교회에 문제가 생겨도 서원을 하며 기도합니다. 물론 서원한 것은 다 지켰고, 지키고 있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까? 이럴 때 서원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도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서원을 지키면 복이 되겠지만 지키지 아니하면 오히려 더 큰 화가 됨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찌라도 변치 아니하며”(시15:1~4).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문제 해결 방법

미국에서 건축자재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어느 날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복수심에 사로잡혀 바로 옆에 유사한 건축자재회사를 만들어서 자기가 상대하던 거래처를 가로채기도 하고, 다니던 회사의 업무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사업에 실패하였습니다. 또한, 이러저러한 일을 두루 해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모두 해봤지만 되는 일이 없다면서 자포자기와 자괴감에 빠져 공원 벤치에 बैठ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멀리 교회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이것을 보는 순간 그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만 일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마음속의 분노와 복수심을 떨쳐 버렸습니다. 건축업을 시작하여 돈을 모은 그는 값싸고 편하고 깨끗한 호텔을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하고 기도하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체인 ‘홀리데이인’의 창업자 ‘케몬스 윌슨’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했지만 사울 왕의 불같은 질투심으로 사울의 칼끝을 피해 도망하게 됩니다. 기약 없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로 들어간 다윗은 오랜 세월동안 수많은 삶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위기를 지혜와 용기로 극복합니다.

위기의 기간은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훈련되는 시간이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옳은 자신과 상관없는 것 같고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듯한 시련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재산이 없어지고, 가족이 죽고, 마지막에는 고통의 질병으로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사탄의 계락을 이겨내고, 결국 본인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어떠한 문제에 봉착했나요? 갑작스런 일을 당해 어찌할 줄 모르고 있나요? 앞이 캄캄하고 해결방안이 도저히 보이지 않나요? 지금 바로 무릎 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시지 않을까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욥5:8)

Dr. 이관섭 장로
kslee@krri.re.kr

:: To Be Succeeded ::

참가치 있는 인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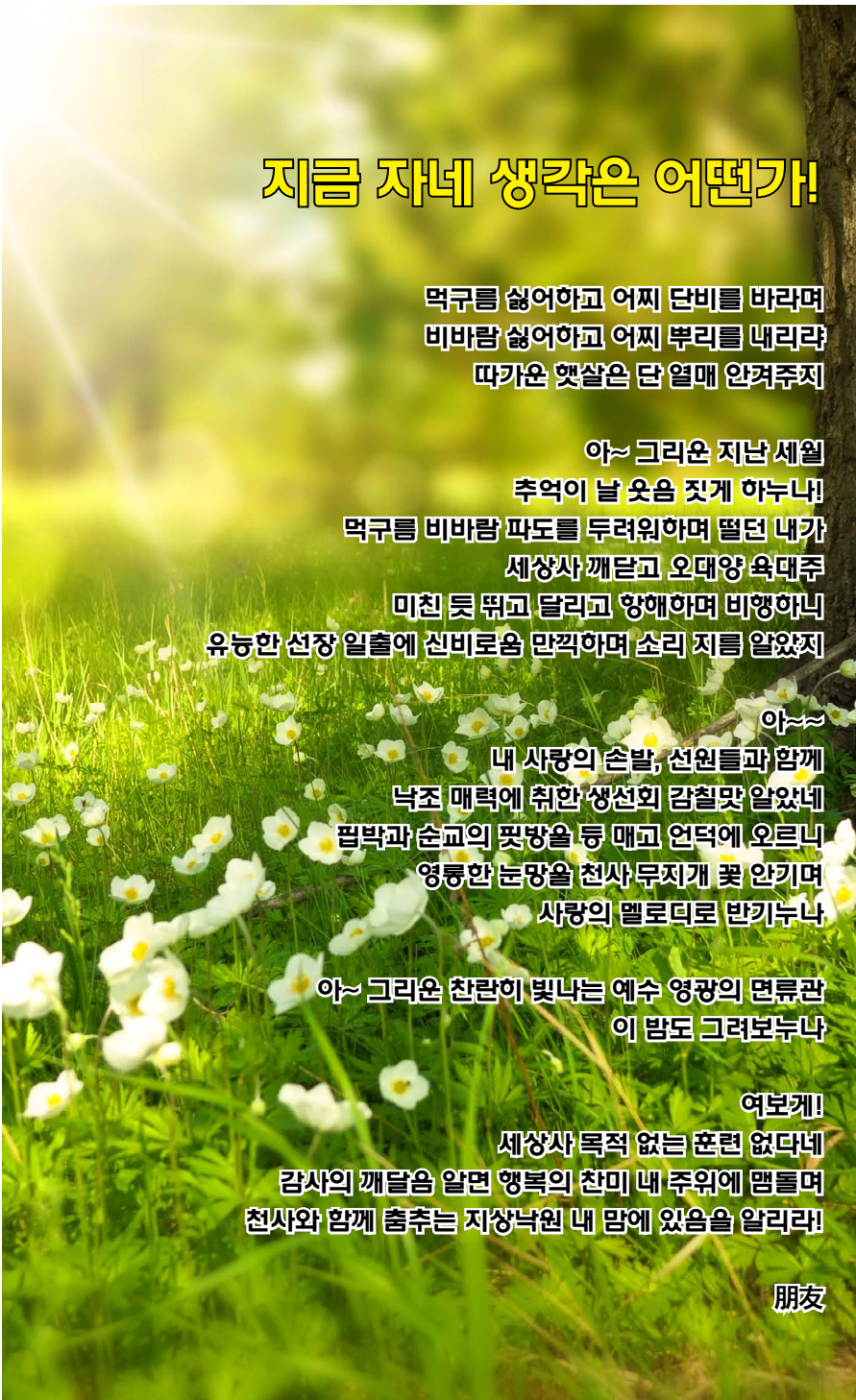
어느 날, 일곱 살 난 아들과 그보다 한 살 어린 딸아이가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다. “유니야, 언젠가 아빠, 엄마는 하늘로 돌아가. 오빠도 언젠가 하늘로 돌아가 거야. 그러면 유니 너 혼자 남게 되는 거야.” 늘 활발하게 놀던 두 아이의 사뭇 진지하고 차분한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여정과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성경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히9:27). 일평생 모든 풍요를 다 누렸다는 솔로몬 왕이 인생의 끝 자락에 가서는 이 세상의 즐거움도, 수고도 모두 헛되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본분이라고 단언한 것을 보며 부평초 같던 우리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된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모든 영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이다.

유력한 집안, 로마 시민권자에 유명한 가말리엘 학파에서 학문을 익힌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전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도 아끼지 않았는가? 자기의 일생을, 때로는 목숨까지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바친, 그리고 현재도 드리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드러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참 가치 있는 것을 마침내 찾았기 때문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또한 그날의 영광과 상,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어내고 젊은 나이에 부와 명예를 모두 누렸던 스티브 잡스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 것을 볼 때, 우리 영혼은 오직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배부를 수 있고, 그분과의 교제로 만족할 수 있으며,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곳 또한 주님 품뽐임을 확신하게 된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후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지혜롭고 후회 없는 선택이자 결단이다. 단언컨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수고로운 인생 가운데 참 소망과 위로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국진 사모**



지금 자네 생각은 어떤가!

**먹구를 싫어하고 어찌 단비를 바라며
비바람 싫어하고 어찌 부리를 내리랴
따가운 햇살은 단 열매 안겨주지**

**아~ 그리운 지난 세월
추억이 날 웃음 짓게 하누나!
먹구를 비바람 파도를 두려워하며 떨던 내가
세상사 깨닫고 오대양 육대주
미친 듯 뛰고 달리고 항해하며 비행하니
유능한 선장 일출에 신비로움 만끽하며 소리 지를 알았지**

**아~~
내 사랑의 손발, 선원들과 함께
낙조 매력에 취한 생선회 감칠맛 알았네
핍박과 순교의 핏방울 등 매교 언덕에 오르니
영롱한 눈망울 천사 무지개 꽃 안기며
사랑의 멜로디로 만기누나**

**아~ 그리운 찬란히 빛나는 예수 영광의 면류관
이 밤도 그려보누나**

**여보게!
세상사 목적 없는 혼련 없다네
감사의 깨달음 알면 행복의 참미 내 주위에 뽐들며
천사와 함께 춤추는 지상낙원 내 맘에 있음을 알리라!**

朋友

:: 삶이 있는 이야기 ::

보혈의 온기

연년생 두 아이가 서너 살 때 우연히 찍어둔 영상이 있다. 둘이 울며불며 달려오기에 왜 그러냐고 물으니 손가락을 곧게 펴서는 서로를 가리킨다. 서로 잘못했다는 것이다. 그만 화해하라고 하니 아이들은 10초도 안 되어 ‘미안해’ 하며 포옹을 하고는 눈물을 쓱 닦고 놀던 자리로 뛰어간다. 언제 그랬냐는 듯 습관처럼 돌아서는 모습이 귀엽기만 하다.

세상은 ‘강한 자만이 용서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강해야 자신의 상처와 손해를 덮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내가 먼저 용서를 할 때면 스스로가 대견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앞에 닥치면 울며불며 벼랑 끝으로 달려간다. 한번은 “예수님도 이해하시죠? 제가 어떻게 더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낭떠러지를 가리키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용서해라.” 몸부림치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다. “용서해라.” 저항할 힘도 없어진 나는 그제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았다.

그분의 상처에서 흘러내리는 뜨거운 피가 나의 발등에 똑똑 떨어져 덮는 것이 느껴졌다. 뽐뽐한 고개를 숙여 내 발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나며 추악한지 내려다보았다. 너무 부끄러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온몸이 벌겍게 달아오르는 것 같았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부끄러웠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없이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다 싶어 한 발짝도 더 옮길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회개했다.

구원받은 우리는 강한 자라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를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용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용서 뒤엔 상처와 손해가 남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희석되어 사라지기 때문이다.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나를 괴롭힐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눈앞에 뵈고, 그 보혈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한다.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이호은 사모**

젊은이들에게 가슴으로 호소합니다!

다음은 카이스트 경영대 이병태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젊은이들에게 가슴으로 호소합니다’라는 글로, 한국경제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가슴에서 호소합니다.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할 때, 이 땅이 살만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욕할 때, 한 번이라도 당신의 조부모와 부모를 바라보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오뉴월 태양 아래에 학교 갔다 오자마자 책가방 팽개치고 밭으로 가서 김을 매고, 저녁이면 쇠먹이를 거두려고 강가로 가고, 겨울이면 땀감을 마련하려고 산으로 갔던 그런 분들을 쳐다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초등학교 졸업하는 딸을 남의 집 식모로 보내면서 울었던 당신의 할머니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대기업이 착취를 한다고요? 한국에 일자리가 없어서 대학을 나오고 독일에 광산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 지금도 대학을 나오고도 독일에 광산 광부로 갔고 간호사로 갔던, 그래서 국제미아가 되었던 당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시대의 이야기를 물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라. 지금도 대학을 나오고도 대한민국에 불법 취업을 와서 노동자로 일하는 필리핀과 몽골의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라. 신혼 초에 아내와 어린 자식을 두고 지하 방 한 칸이라도 마련해보려고 중동의 피약별로, 건설 공사장의 인부로 갔던 당신의 삼촌들을 보고 그런 응석을 부려라. 월남전에 가서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했던 당신의 할아버지, 삼촌 세대를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라.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지 않나? 앞 세대의 성취와 피땀을 그렇게 부정하고 폄하하고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나? 사람들은 내가 미국 가서 박사하고 카이스트 교수하고 반기업 정서에 대응하니까 무척 급수저인 줄 아는가 보다. 나는 위에 적은 일들을 직접 경험했고 보고 자랐기 때문에 당신들처럼 그런 배부른 소

리를 못할 뿐이다. 나는 부모 모두 무학으로 농부의 아들이고, 그것도 땅 한 평 없던 소작농의 아들로 자랐다. 중학교 때까지 등잔과 호롱불로 공부했다. 나보다 더 영특했던 우리 누이는 중학교를 가지 못하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으로 취업해 갔고,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니의 지워지지 않는 한이다. 나는 대학 4년 내내 아르바이트로 내 생활비를 마련하며 다녔고, 때로는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면서 다녔다. 나는 돈 한 톨도 없이 결혼했고 집 없는 설움을 겪으며 신혼 초에 치솟는 전셋값 때문에 서울 번두리를 전전하며 살았다. 단돈 300만원으로 가족을 데리고 유학을 가서 배추살 돈이 없어서 김치를 만들어 먹지 못했고, 내 아내는 남의 애들을 봐주고, 딸은 흑인 애들이 받는 사회보장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서 우유와 오렌지주스를 사 먹이면서 학교를 다녔다. 나는 회사에 취업해서 주 6일을 근무하던 때에, 입사 첫해에 크리스마스 날 단 하루 쉬어 보았다. 공장 창고의 재고를 마치고 퇴근도 안 하고 팬티만 입고 난방도 안 되는 높다란 창고 위를 기어올라 부품을 세면서 생산을 정상화하려고 했었다. 그렇게 야근하는 날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삼겹살인 줄 알고 살았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무책임한 노조가 망가트린 회사를 보아왔기에, 우리보다 잘사는 것으로 알았던 많은 나라들이 고꾸라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잘사는 사회인지 보았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처럼 아프다고 못하고, 힐링해야 한다고 응석을 부리지 못한다. 제발 당신의 고결한 조부모와 부모들을 더 이상 능멸하지 말라. 당신들이 우습게 아는 대한민국 기업들, 가발 공장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부터 시작해서 배워서 지금까지 일군 것이다. 정부의 벤처 지원책도, 금융도 없었고, 대학도 없었고, 컨설팅 없이 자율 수출 공단에 진출한 일본인

들에게 술 사주고 접대하면서 배우고 일군 것들이다. 당신의 이모, 고모가 그렇게 술 따르면서 번 돈으로 동생들을 공부시켰다. 제발 응석 부리고 빈정거릴 시간에 공부하고 너른 세상을 보라. 우리 사회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알뜰하게 공부하고 나서 비난해도 늦지 않다. 사람값이 싸다고 투덜대기 전에 누구 한 번 월급 쥐보고 그런 철없는 소리를 하고, 월급보다 더 가치 있는 직원이라고 증명해라. 그런 직원 찾으려고 기업주들은 눈에 불을 켜고 찾는다. 난 당신들의 그 빈정거림과 무지에 화가 난다. 그러니 나보다 더 고생하고 생존 자체를 위해 발버둥 쳐야만 했던 나의 앞 세대, 내 부모님의 세대는 오죽하겠나. 당신들이 아프다고 할 때 나는 그 유약하고 철없음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다. 당신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 스타벅스 커피, 스타크래프트 게임, 해외 배낭여행... 그 어떤 것들도 당신들이 이룬 것은 없다. 당신들은 지금 이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으로 지금 누리는 것에 보답해야 한다. 우리 세대는 누리지 못했기에 당신들이 누리는 것을 보는 것으로 행복할 따름이고 부러울 따름이다. 그러나 당신들에게 조롱받을 아무런 이유는 없다. 당신들의 앞 세대는 그저 물려받은 것보다 몇 십, 몇 백배로 일구어 넘겨준 죄뿐이고, 당신들에게 인생은 원래 고달픈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지 못한 것뿐이다. 사기꾼들이 이 나라 밖에는 어디 천국이 있는 것처럼 거짓을 전파할 때, ‘설마 저런 소리에 속을까’ 하며 미리 막지 못한 죄뿐이다. 당신들의 부모들이 침묵하는 것은 어이가 없거나 말해도 못 알아듣거나, 남보다 더 해주고 싶다는 한없는 자식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지 당신들의 응석이 옳아서가 아니다. 그들은 속으로 울화통이 터져서 울고 계실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헬조선이라 빈정대지 마라. 부모들은 모두 울고 싶은 심정이라ندا.”

약식동원 - 생강편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덥고 습한 요즘 같은 날씨에 지나친 냉방과 차가운 음식으로 우리 몸의 겉과 속이 차갑게 되면 뜻하지 않게 감기나 장염에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강은 속을 따뜻하게 해주어 배탈을 막아주고, 감기와 장염을 사전에 막아주는 음식이고 약이 됩니다. 생강은 성질이 따뜻하고 독성이 없으며, 비, 위, 폐의 경락에 영양을 주고, 우리 몸에 차가운 한기가 들어왔을 때 풀어주며, 구토를 막아주고, 기침 가래를 완화시키며, 해독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어류, 해산물 등으로 인한 해독 효과가 있어서 일식집에 가면 마늘과 함께 생강을 얹게 썰어서 주는 것이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보통 생강은 하루에 3~10g을 섭취

할 수 있으며, 눈병이나 종기, 치질이 있거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름철 배탈로 인해 쌀로 죽을 끓여 먹을 때 생강, 대추, 호두를 넣으면 소화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 냉방이 너무 심해서 몸이 추워질 때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꿀생강차 한두 잔을 마시면 냉방병으로 인한 오한이 회복됩니다. 그것으로 회복이 약한 경우에는 약국에서 갈근탕 한잔을 마시면 오히려 기운 초기에 금세 회복될 것입니다. 여름철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소화기가 약한 아이들의 멀미에도 생강차는 도움이 되며 뱃멀미, 차멀미가 줄어듭니다. 한국의 사이다와 같은 캐나다의 국민 음

료수(canada dry)를 생강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외국인들도 생강의 효능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의 껍질은 성질이 서늘하므로 껍질을 벗기고 사용하여야 하며, 속이 많이 차가운 체질을 가진 분들은 생강을 얇게 썰어서 건조시키게 되면 색이 검게 바뀌는데 이것을 건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차로 드시면 생강보다 차가운 복부를 좀 더 따뜻하게 해줍니다. 음식이며, 약이며, 조미료나 음료에까지 쓰이는 생강은 늘 우리 가까이에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소중한 건강 식품입니다.

Dr. 설재현 집사
kseolmed@hanmail.net

하나님이 먼저다

예수중심교단에서는 매년 여름, 성도들의 영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영적훈련장이 마련된다. 그것은 청소년 연합수련회와 하계산상집회이다. 우선 수련회가 먼저 행해지는데, 전국의 중고등부, 청년대학부는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천국잔치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 총회장 목사님의 ‘하나님이 일하시면 마귀도 같이 일한다’는 가르침대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수련회를 앞두고 다양한 영적전쟁을 치르고 있다. 필자도 이 영적전쟁을 승리하기 위해 속한 부서의 공동체들과 몇 달째 기도처에서 작정기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개인적인 큰 문제가 생겼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내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인간은 누구나 결정적인 순간 이기적이 된다고 하던데 내가 바로 딱 그 짝이었다. 그때 주님께서는 내 머리를 세게 때리듯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을 주셨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당연히 알아요! 그런데 머리로 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울고불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와중에 하나님은 문제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전히 수련회만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매일 기도처에 가서 무릎을 꿇으며 다짐했다. “하나님, 오늘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러 모인 자리에서 제 개인의 기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런 저를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결단한 후 일주일 뒤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상상할 수도 없는 수단으로 하나님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해주셨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현해야, 무수한 상황과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먼저란다. 네가 그걸 결단한 순간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 해줄 거야!”

예수중심교단의 젊은이들이여,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따르자!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임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가자! 수련회로. **송현혜 성도**

어린이 여름성경캠프

8월 4일(일)~6일(화)
인천예수중심교회

하계산상집회

8월 5일(월)~8일(목),
8월 12일(월)~15일(목)
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 533. 9191